

삶의 만족도 분석

(EDA 위주)

JH LEE95

프로젝트의 동기 및 목적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고, 매년 세계 10위권의 경제 순위를 달성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 수준은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삶의 어떤 부분을 만족하고 또 불만족하는지 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태를 보이는 것이 이번 분석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 및 국민의 관심사항을 조사한 '2019 삶의 질 여론조사'를 활용하였고 특히 우리 조의 주된 관심 대상은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와 '연령과 삶의 만족도 관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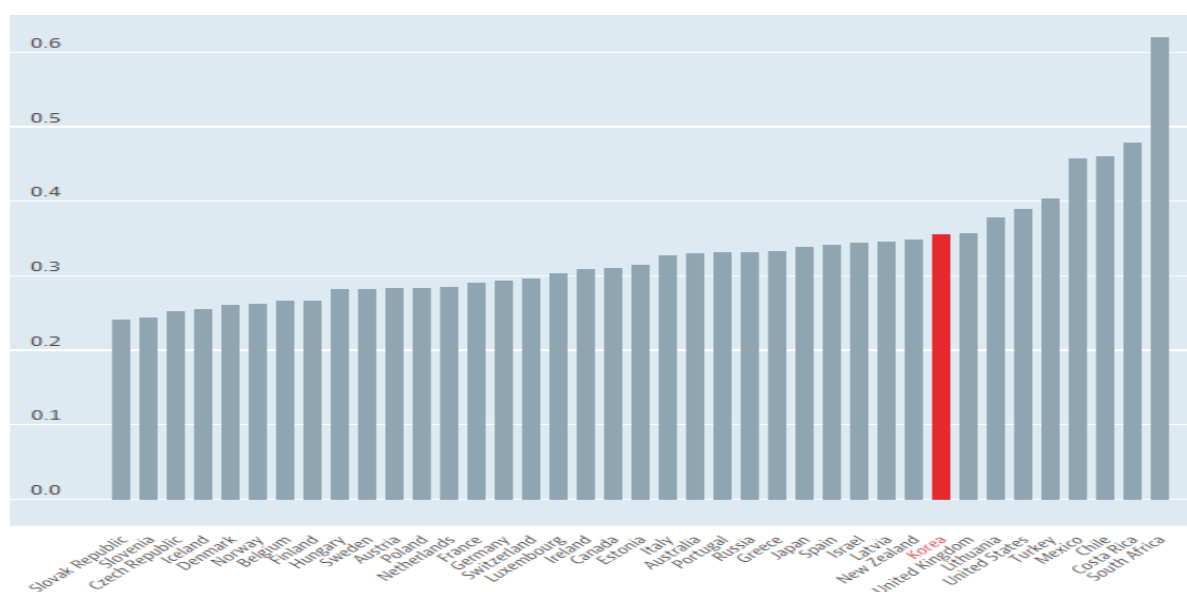


그림 1 소득불평등 지수(지니계수), OECD

첫 번째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실태를 알아본다. 두 번째로 '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수(지니 계수)는 0.35로 OECD 35개국 중 9위이다. 이러한 소득격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떤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만족도 부문 별 낮은 항목의 원인을 생각해보았다. 세 번째로 '연령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625세대, 586세대, 민주화세대, 2030세대 등 여러 세대가 공존 및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른 연령별 만족도를 조사하여 각 연령대별 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프로그래밍

1. 분석 대상 데이터

데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9 삶의 질 여론조사” 데이터이다. 데이터셋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구하였다. 원본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시트와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시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데이터를 담고 있는 시트만 앞서 언급한 csv 파일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2. 분석 특징

이번 분석의 목적은 주어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해석하여 인사이트를 얻는데 있다. 따라서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 또는 분류모델은 사용하지 않았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EDA 및 Pandas 데이터 프레임 다루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단계별 데이터 분석 방법

1)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준비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단계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데이터는 47개의 변수로 총 1500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데이터셋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응답자의 인적사항(나이, 학력, 지역, 성별 등)을 묻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각 부문별 만족도를 묻고 있다.

2) Missing Value 확인

데이터셋 내의 결측치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때 본 데이터셋에는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수정된 데이터는 없다.

3) 데이터 전처리 : 변수 선택 및 삭제

본격적인 데이터 전처리 단계로 각 컬럼의 내용 및 데이터 타입을 확인한다. 분석에 활용될 만한 컬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분석에 활용되지 않는 컬럼은 삭제한다. 또한 알아보기 쉽도록, 컬럼명을 변수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해준다.

EX1) 질문과 답변이 중복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SQ2” 변수는 응답자의 성별을 묻는 문항으로, “DM1”과 겹친다. 따라서 “SQ2” 변수를 삭제한다.

EX2) “DM2” 변수는 답변자의 연령대를 담고 있는 변수로 “Ages” 로 컬럼명을 변경하였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47개의 변수가 32개로 줄어들었고, 데이터의 수는 1500개로 변하지 않았다.

4) 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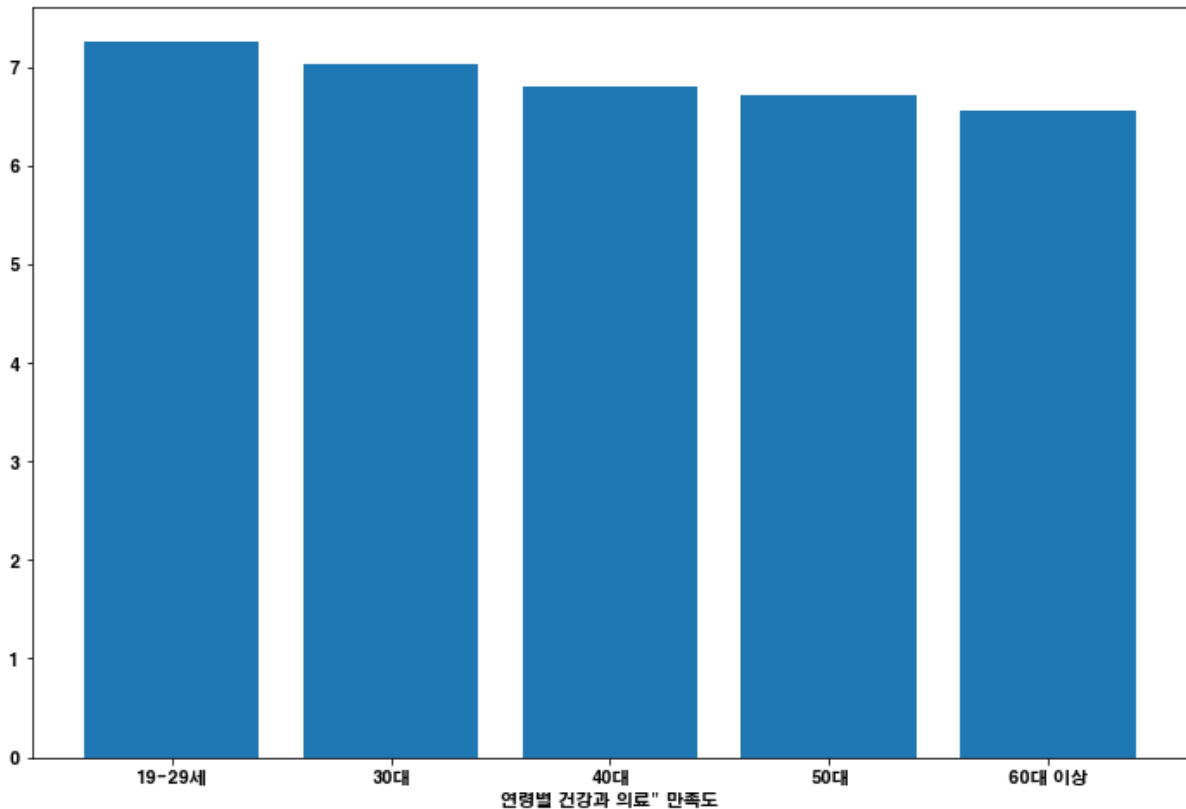
본격적인 데이터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연령대에 따른 각 부문별 삶의 만족도, 소득구간에 따른 각 부문별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원본 데이터셋에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0~10 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높을수록 만족함). 따라서 먼저 각 부문별 만족도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Chapter 2. 데이터 분석 및 해석

1. 연령대별 각 부문에 대한 삶의 만족도 분석

1) 건강과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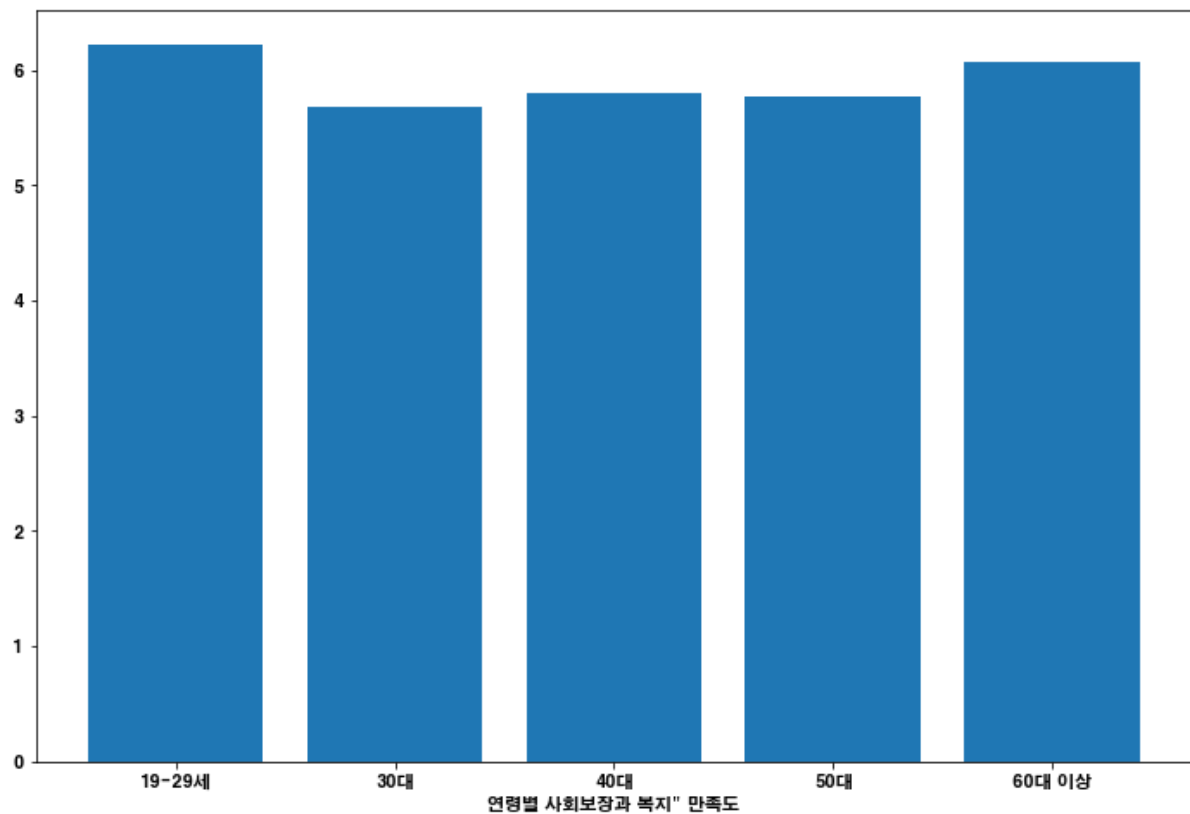
분석결과 및 원인 : 건강과 의료 만족도는 나잇대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기관의 쇠퇴로 말미암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요인으로 낮은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gdp 대비 국민 경상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이 이에 발맞추지 못함에 따라 개인에 가해지는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이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180501078900017>)

해결방안 : 베이비 붐 세대의 수많은 인간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국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필

연적인 현상으로, 민간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보험기금의 부담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허나 현재 대한민국의 소자화(小子化) 현상이 현대인류역사상 그 속도가 유례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수의 미래세대가 다수의 현재 세대의 불편을 떠받치는 방향보다는 경제활동 동안 개개인의 납부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사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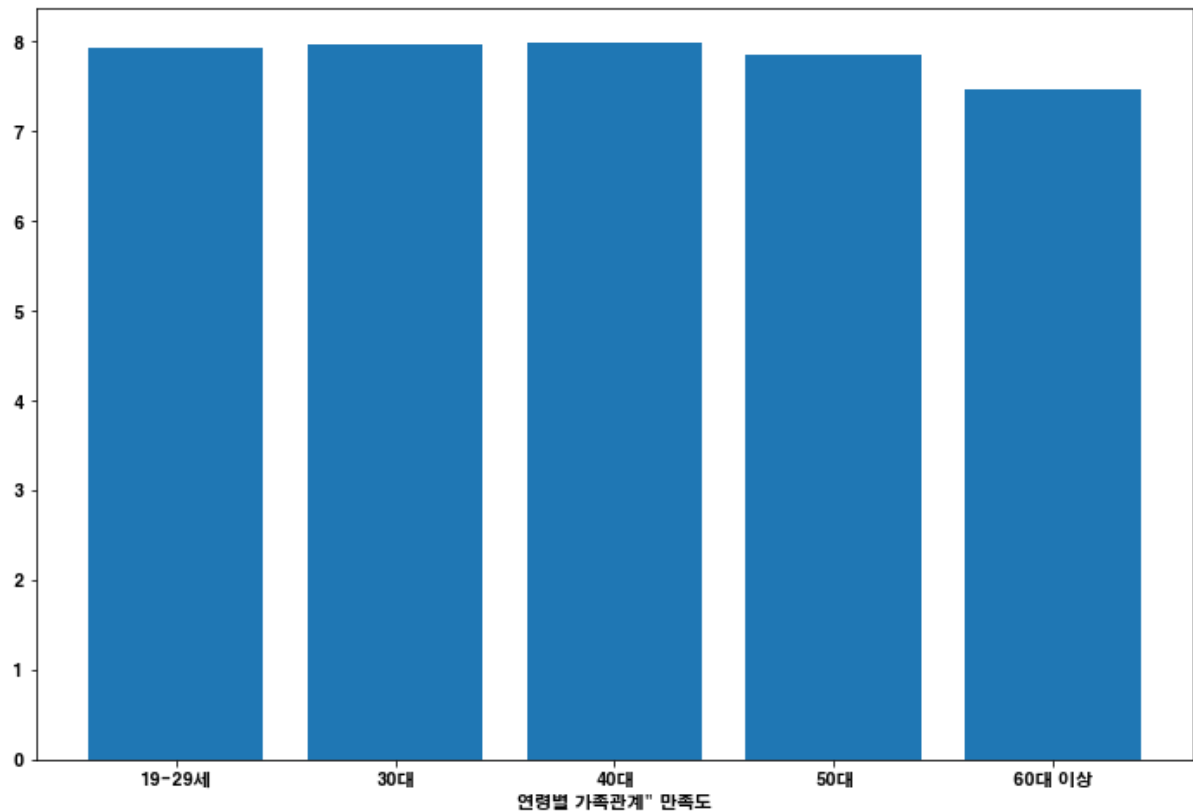
2) 사회보장과 복지



분석결과 및 원인 : 사회보장과 복지 만족도는 30세 이하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30,40,50 대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의 선별적 복지 제공과, 납세자와 수혜자간의 미스매치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아닐까 사료된다.

해결방안 : 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납세시 혜택이 수반된다는 긍정적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며, 선별적 복지 대상의 범위를 절실한 계층으로 한정함으로써 특정 집단이 얻는 필요이상의 수혜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사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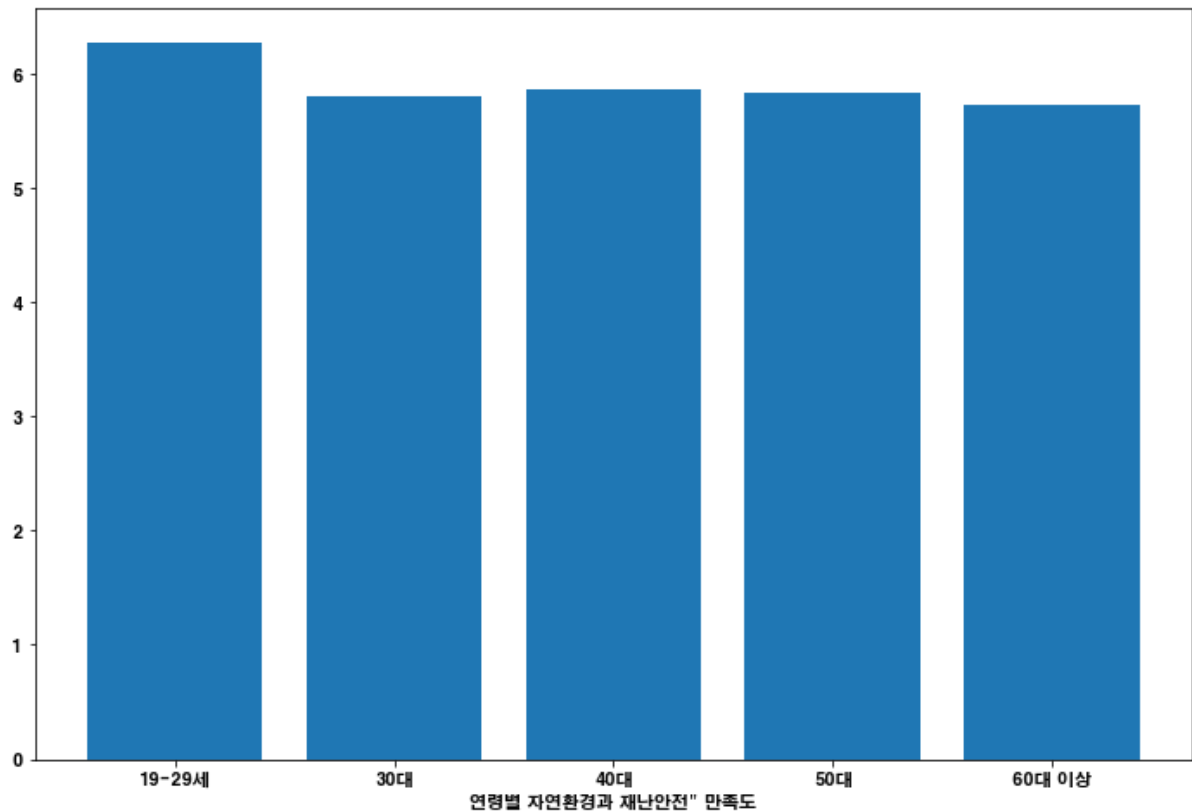
3) 가족관계



분석결과 및 원인 : 대한민국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마을의 대가족 구성원으로 태어난 세대가 가족의 해체와 분열을 겪으면서 느끼는 괴리 및 소외감 때문이 아닐까 사료된다.

해결방안 : 전통적 가족의 해체는 더욱 더 가속화 되어, 현대 사회에서는 동거/딩크/비혼주의 등 가구의 양상이 갈수록 다채로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족의 가치를 회복할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가족 외에 사람들과 교류할 장(場)을 확대 제공하는 방안이 정부에 있어선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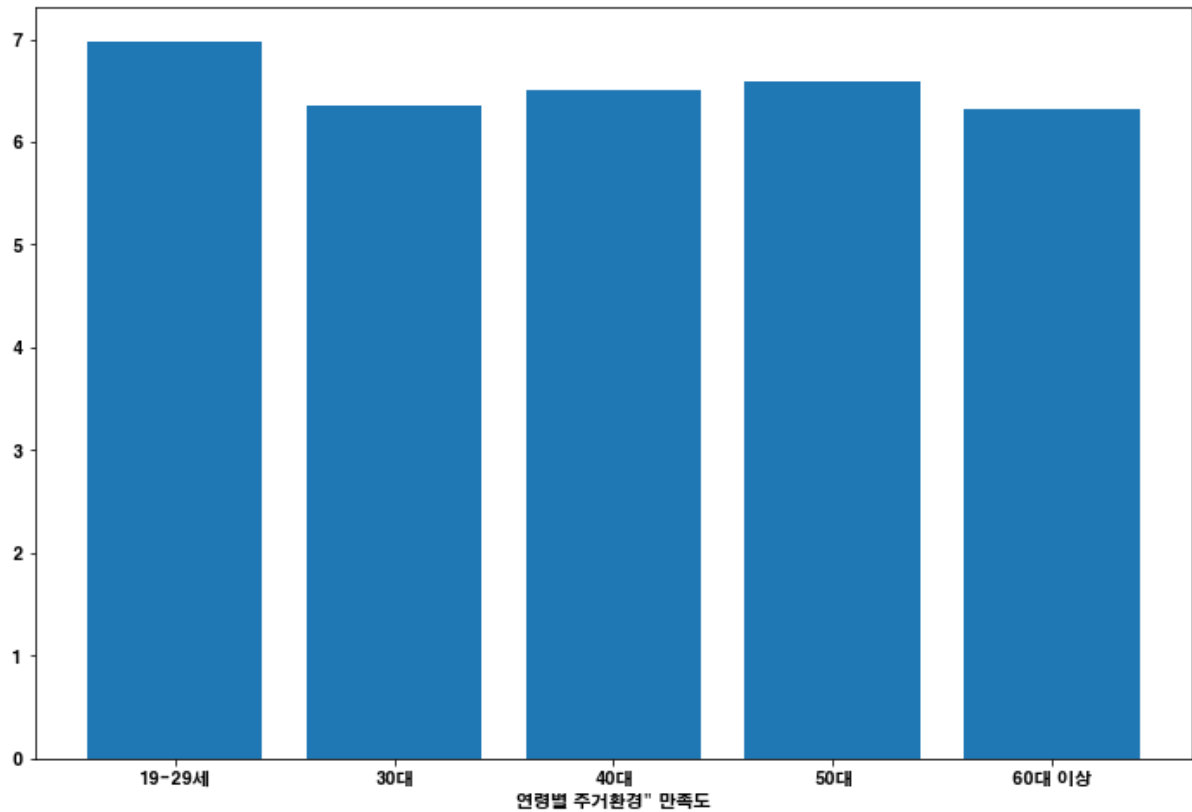
4) 자연환경과 재난안전



분석결과 및 원인 : 자연환경과 재난안전 만족도는 19~29세 인구에 비해 타 세대에서 균등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9~29세 사이의 사람들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자연재해가 극도로 적은 땅의 국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것은 일견 이해가 가지 않으나,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미세먼지문제의 악화가 원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사료한다. 또 다른 한 축은 지도자 계층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다리폭파 사태부터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태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도계층의 무책임한 면모를 수차례 목격해 왔다. 위기 재난상황에 국가가 과연 나라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 개인이 의구심을 품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해결방안 : 산업화로 인한 공해의 배출을 타 국가에 전가하는 중국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단은 없어보이며,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는 공단을 마찬가지로 해안가에 조성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만한 태도가 아니라고 사료한다. 허나 재난사태에 대한 지도계층의 책임을 묻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사료한다. 부실한 대응으로 피지도 계층의 피해를 야기할시 엄격한 문책과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함으로서 지도계층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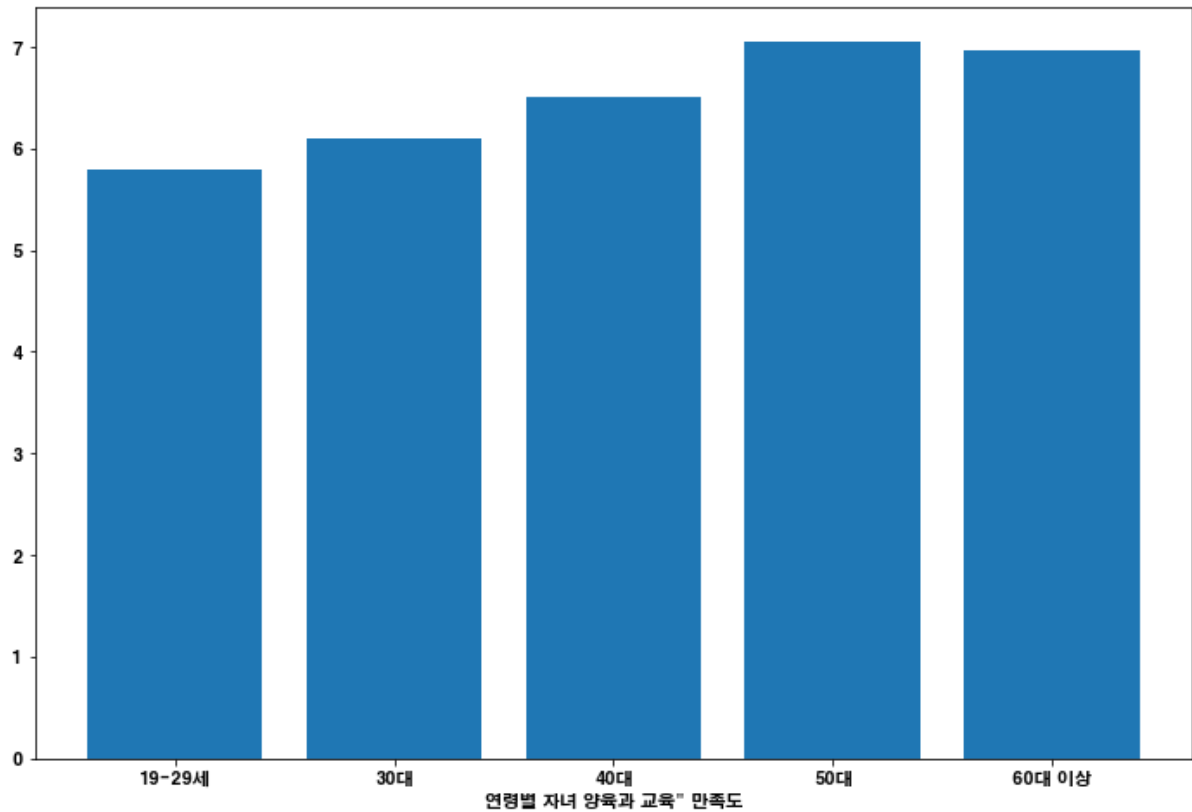
5) 연령별 주거환경



분석결과 및 원인 : 19~29세의 만족도가 제일 높으며 30대부터 50대까진 점점 더 만족하는 면모를 보이나 60대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19~29세의 경우 기숙사 등의 제도로 인해 적은 돈으로 필요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으나, 직장생활을 하며 교외 및 위성도시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30대들의 고충이 얼핏 엿보인다. 이는 소득이 증가하고 점차 중심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많은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린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일부는 도심에서 지내는 반면, 변화 지역에서의 지출을 감당하지 번두리를 걸돌아야 하는 인간들 또한 존재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료한다.

해결방안 : 그간 대한민국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수혜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혜택 대상의 범위를 국소로 한정하는 현행 제도가 집이 한낱 투기상품으로 변질된 오늘날에도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수혜대상의 범위를 넓히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경제적 지대를 누린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물림으로서 충당한다. 이는 능력에 과분하게 노른자위에 위치한 잉여인간들을 외곽으로 축출하고 실수요자가 해당 지역에서 사는데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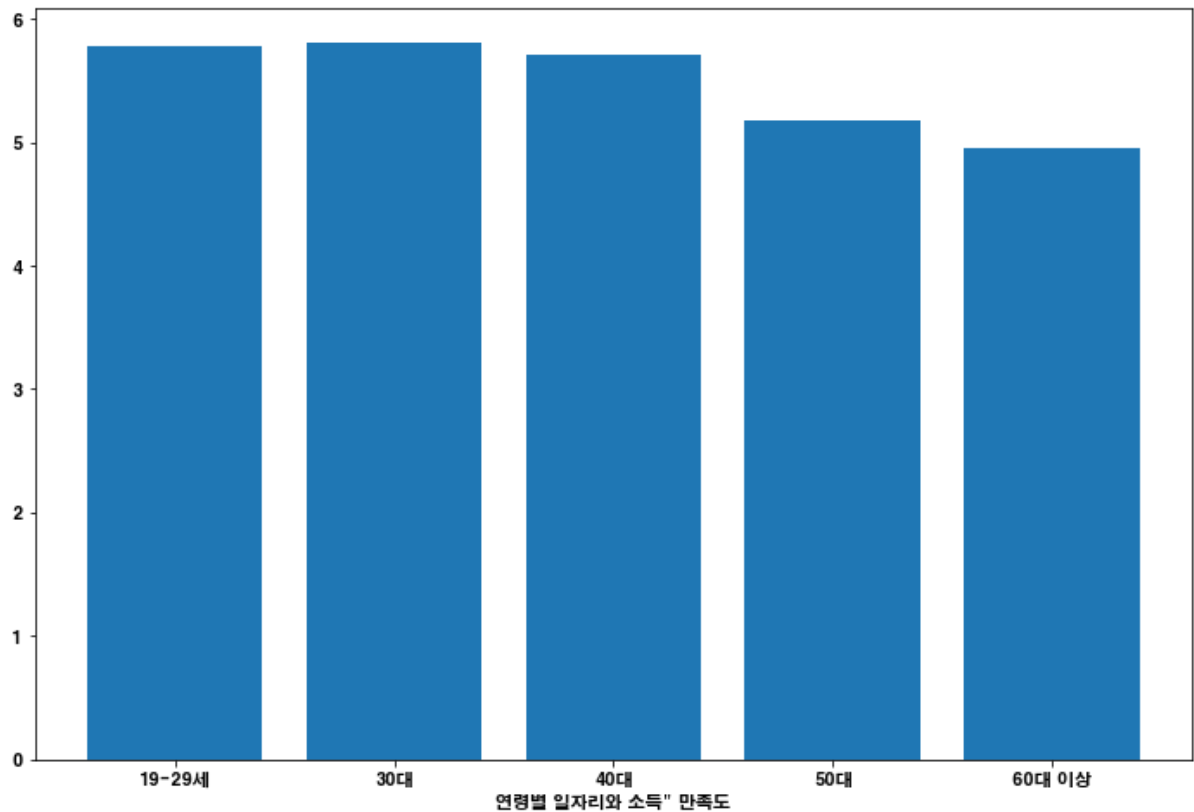
6) 자녀 양육과 교육



분석결과 및 원인 : 저연령 계층일수록 낮은 만족도를, 고연령 계층일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고연령 계층의 자녀들은 당시 이 정도로 사교육 열풍이 불던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수능성적이라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지표에 기반하여 대학에 입학하던 시절이니 만큼 불만이 상대적으로 덜 했을 것이라고 사료한다. 허나 시간이 흐를수록 각종 불투명한 수시전형으로 인해 입학기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 '조국 사태' 마저 터지고 말았다. 30대의 불만은 육아와 커리어를 병행하기 힘든 한국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느껴진다.

해결방안 : 사교육 열풍이 분 것은 공교육의 효율이 이에 못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감한 인사를 통해 무능한 교사들을 정리하고 내실을 굳건히 다져 현 40~50대 부모들의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시의 비중을 줄이거나, 납득할만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철저히 감사함으로서 어린 세대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한다. 워킹맘들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한다면 30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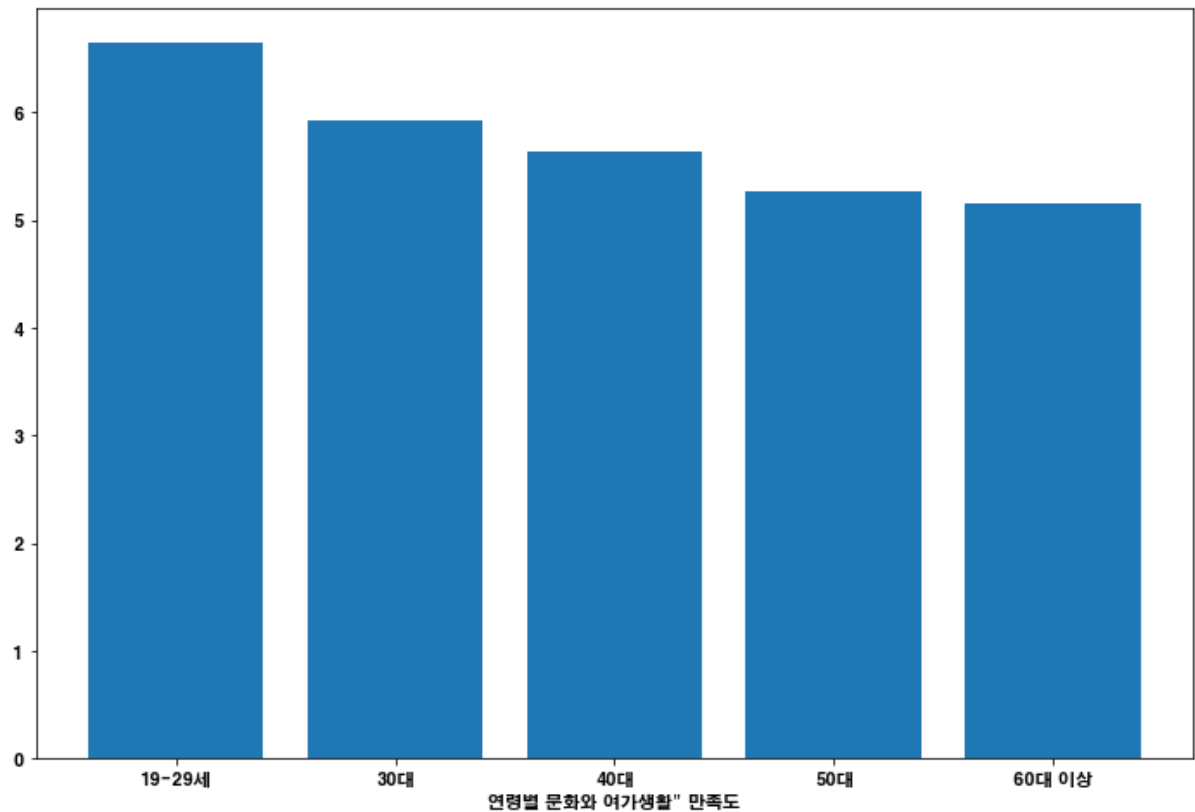
7) 일자리와 소득



분석결과 및 원인 : 국민소득 3만달러의 국가에 걸맞지 않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 수치는 50대, 60로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1차 산업의 수율(yield)이 높지 않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필품의 가격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50,60대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노년 일자리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투영하고 있다.

해결방안 : 1차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설령 스마트 팜등을 도입하여 이를 이룩한다손 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투자 기대값만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므로 물가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한다. 청년 일자리조차 부족한 판국에 사멸해가는 노년에게 일자리를 억지로 배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허나 후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게 함으로서 상당부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8) 문화와 여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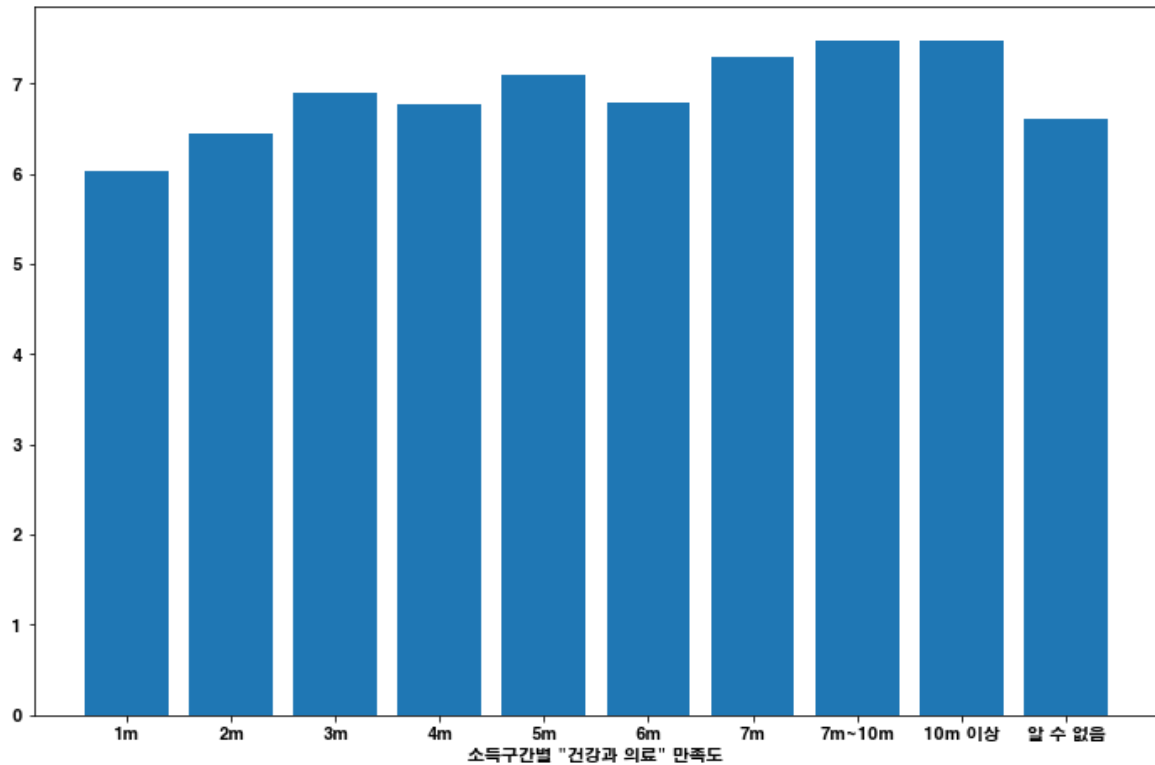


분석결과 및 원인 : 나이가 들수록 문화와 여가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 20대들은 pc방, 만화방, 콘서트장 등 누릴만한 콘텐츠가 무궁무진하나, 장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취미를 공유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해결방안 : 많은 장소에서 노인들은 굵튼 행동으로 인해, 중장년층은 완고한 면모로 인해 같은 비용을 지불할 경우 큰 환영을 받지 못하며, 이는 곧 행동반경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들을 국가가 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정 세대만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사료한다.

2. 소득구간별 각 부문에 대한 삶의 만족도 분석

1) 건강과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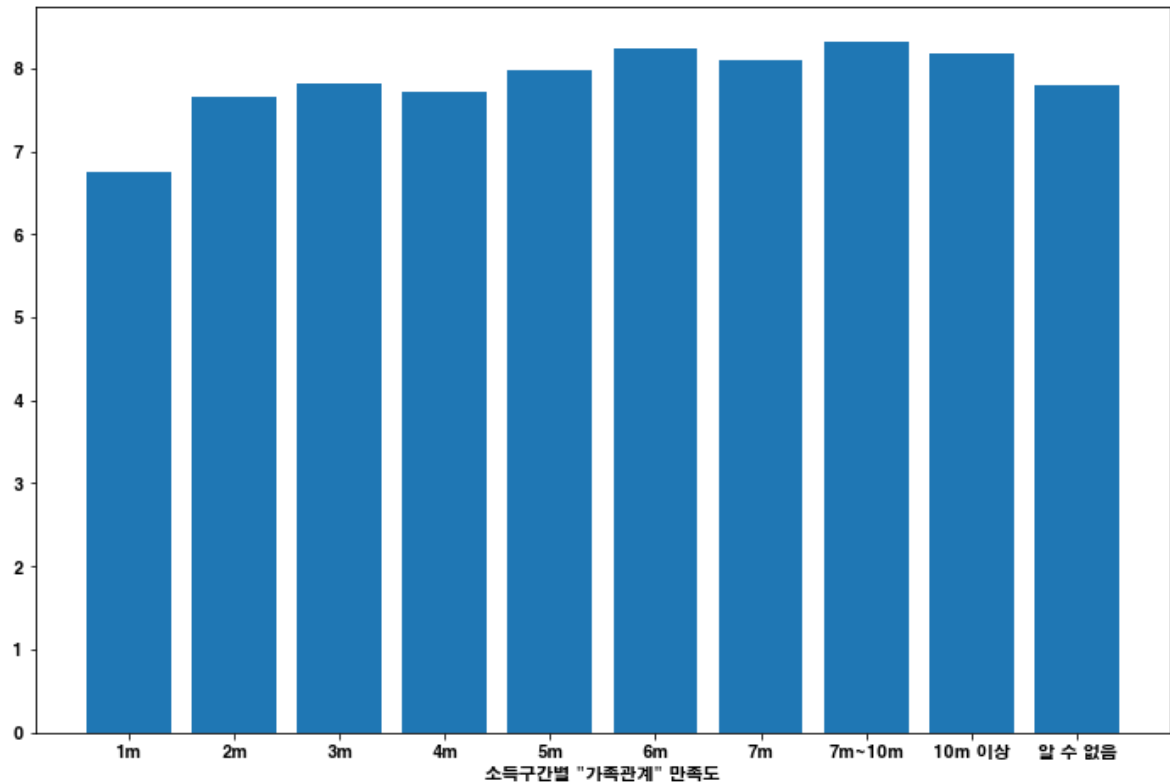


분석결과 및 원인 : 최저소득층 (1m, 2m)는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7m 미만의 구간들에서의 만족도가 정비례하지 않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체구간의 평균치는 약 6.5로, 모든 소득구간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건강 및 의료 부문에서의 계층 별 격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특히 최저계층에서의 만족도가 평균치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분야의 복지 제도 (의료보험 등)가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된다.

해결방안 : 최저소득층에서의 의료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다른 구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상향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545>

2)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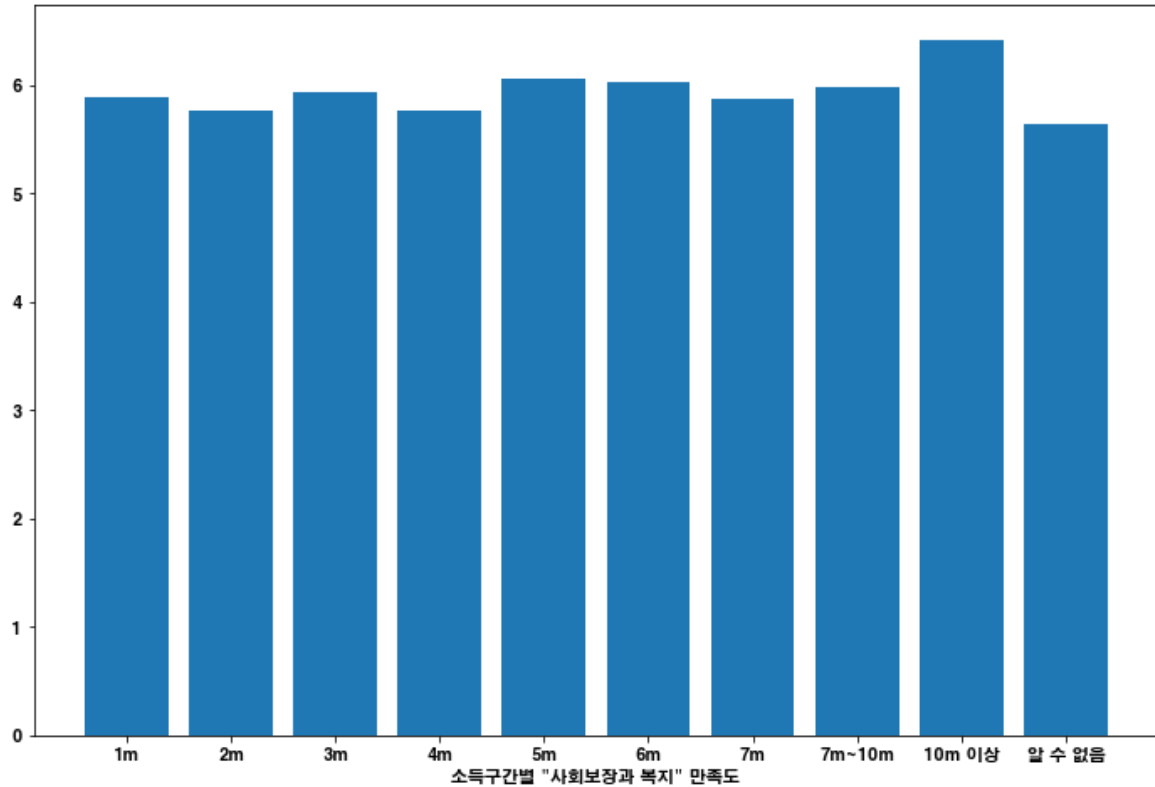


분석결과 및 원인 : 1m을 제외하고 평균치가 8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1m (최빈층) 만 7도 안되는 수치로, 굉장히 낮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가족의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등)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해결방안 : 현재에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등 구조 상 안정적인 소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정들을 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에도 불구하고 최하층에서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수준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고정된 복지가 아닌 실상황에 맞는 유의미한 보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참고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24>

3) 사회보장과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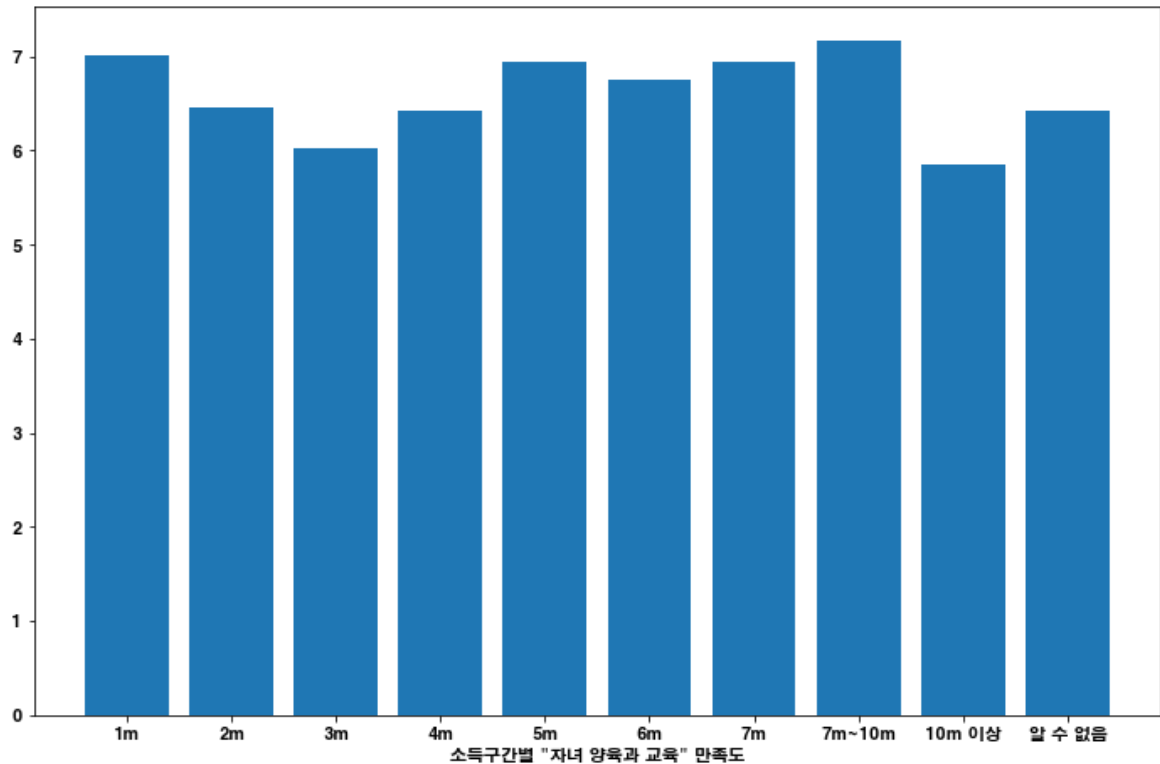


분석결과 및 원인 : 평균 만족도는 약 6으로, 모든 항목이 6에 근사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 모든 소득구간에서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특히, 10m에서 수치 상 거의 7에 육박하는 만족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최고소득층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해결방안 : 모든 소득구간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낸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고소득층의 월등한 수치의 만족도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복지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더 수혜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중산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복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참고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2/2019082201316.html

4) 자녀 양육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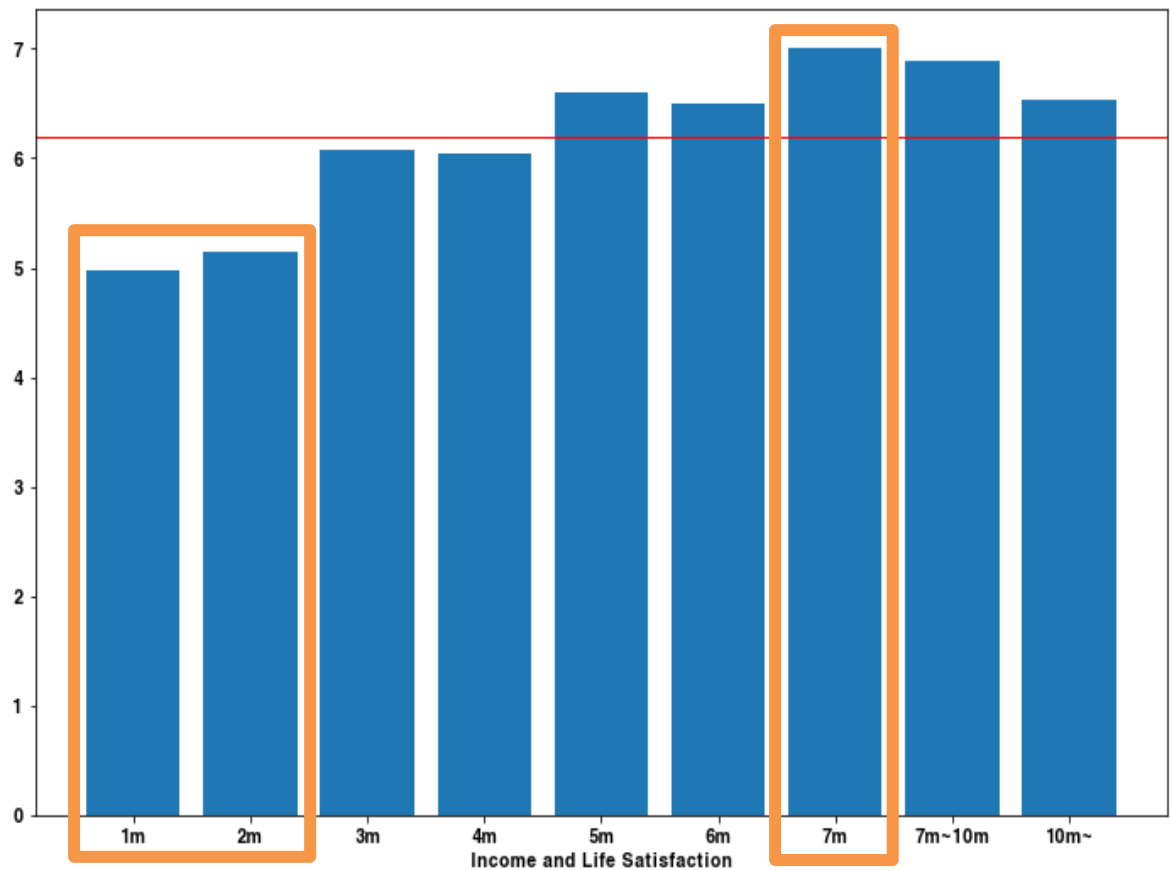


분석결과 및 원인 : 소득구간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며,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의 그래프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3m, 10m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 주는데, 이는 저소득층에서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의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과 국가가 제공하는 양육 및 교육의 수준이 최고소득층이 원하는 기준에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해결방안 :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최소한의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 <http://www.edu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2700>

5)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분석결과 및 원인 : 소득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상승한다. 그러나 항상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7m 이상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수준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다. 한편 최저소득층 (1m,2m) 구간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에 비해 심히 낮으며, 3m 이상이 되어야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다. 이는 최저계층일수록 일상에서 소득에 의한 영향에 더욱 직접적이고 민감하다.

해결방안 : 앞선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최저계층에 대한 복지 수준을 상향조절 해야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실상황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의 복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이 강구된다. 또한 최빈층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최고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혜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Chapter 3. 한계점

한계점

이번 분석에서는 소득과 연령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젠더 이슈가 극심한 것을 감안하여, 성별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였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하였지만 머신러닝을 통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거나, 예측 분류 모델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이 경우 어떤 변수를 조정하면 만족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예측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